

쇼쿄쿠사이덴카츠(松旭齋天勝)의 춤 전개 양상 연구

-1911년에서 1935년까지의 경성공연을 중심으로-

이주희*

I. 서론	IV. 결론
II. 쇼쿄쿠사이덴카츠의 생애와 덴카츠좌(天勝座)의 형성	참고문헌
III. 덴카츠와 덴카츠좌의 춤 전개 양상	Abstract

1. 서론

일제강점기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새롭고 다양한 선진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문화를 정체되고 낡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서구의 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던 시기이다. 특히 일본을 통해 수용된 대중공연예술은 프로시니엄 무대의 등장과 극장식 공연물 흥행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많은 무대와 공연물이 조선에 들어와 흥행을 했지만 대중공연예술인 영화·연극·무용·창가 등이 특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볼만한 공연으로는 근대와 현대예술의 통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쇼쿄쿠사이덴카츠(이하 덴카츠)와 덴카츠좌¹⁾의 공연이다. 덴카츠가 설립하고 활동했던 덴카츠좌는 미술과 기술에 곡예, 춤, 노래, 연극 등을 곁들여 활동했던 종합 대중공연 예술적인 성격을 갖춘 마술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주로 종합예술마술단, 곡예단, 대중연예단으로 불리지만 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술용무용극, 가정무

* 주저자 및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kintaro64@hanmail.net.

1) 정식 명칭은 쇼쿄쿠사이덴카츠좌(松旭齋天勝座)이나, 본 논문에서는 덴카츠좌로 표기한다.

용극, 재즈댄스, 재즈, 발레, 일본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용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연단이다. 덴카츠좌에서 춤으로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우의무(羽衣舞)’를 비롯하여 ‘재즈·발레와 같은 레뷰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 무용을 습득하여 일본무악(舞樂)을 재구성한 무대 등 다양한 춤이 무대에 올려졌다. 이 단체의 춤 레퍼토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양한 대중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레퍼토리를 확대하여 흥미 본위의 대중 공연 예술로 대중성을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서구의 신문화에 다가 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 준 것은 물론 신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의 설립자인 덴카츠의 춤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근대무용의 대중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들은 조선에서도 여러차례 장·단기 공연을 하며 인기를 끌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성에서의 공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²⁾

덴카츠는 1911년 경성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이후 덴카츠좌를 결성하였고,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를 기점으로 경성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얻었다. 1934년 덴카츠좌의 단장인 덴카츠의 은퇴까지 매 공연 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항상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시켜 무대를 구성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해 나갔다. 덴카츠좌는 특히 무용가 배우자가 입문하여 활동하던 곳으로 1918년에 덴카츠좌 경성 공연에서 첫 데뷔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에서 근대춤의 수용기점을 1926년 이시이바쿠의 경성 공연으로 보고 있으나, 대중성적 측면의 근대춤이라는 또 하나의 경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시이바쿠보다 먼저 1911년경부터 경성에서 연행한 덴카츠좌의 공연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무용가 배우자의 무대 공연을 파악하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덴카츠와 덴카츠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연구된 石川雅章(1971). 『松旭齊天勝』, 高木史朗(1955). 『레뷰의王様』 등의 단행본이 출판되어 있을 뿐이며, 국내의 김영희(2008). 「일제 강점기 레뷰 연구」에서는 조선에 레뷰가 도입된 상황과 인물 소개하고 처음 레뷰를 도입한 인물로서 덴카츠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덴카츠와 덴카츠좌가 경성에서 활동한 춤 전개 양상과 그 특성을

2) 본고에서는 덴카츠라는 인물 덴카츠좌라는 단체를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였다. 덴카츠좌는 덴카츠 개인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덴카츠좌의 경성에서의 공연 활동은 대중예술단체라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기사보다 비중이 더 작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매일신보·경성일보·조선일보 등의 일간지의 기사에 나타난 덴카츠좌의 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연대별로 그 특징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연된 내용과 공연전단을 기초자료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대중공연예술의 양상의 하나인 덴카츠와 덴카츠좌의 공연 활동을 덴카츠의 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쇼코쿠사이덴카츠의 생애와 덴카츠좌의 형성

쇼코쿠사이덴카츠(松旭齋天勝)는 명치(明治)시대 후반부터 쇼와(昭和)시대 전기에 걸쳐 활동한 기술, 미술사이다. 본명은 노로가즈코(野呂勝子)로 1884년(명치17) 5월 21일 동경에서 출생하였다. 이 시기 일본사회는 구미열강에 밀려 쇠국의 길을 버리고 구미화(歐美化)를 선택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수용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1883년에 낙성한 사교장 로쿠메이칸(鹿鳴館)³⁾에서 로쿠메이칸 외교를 시작하여 구미인에게는 상당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일본인의 서구화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11세 무렵 집안이 몰락하여 덴카츠의 부모는 덴카츠를 쇼우코쿠사이테이찌(松旭齋天一)⁴⁾ 미술단체인 테이찌좌에 입문시켰다. 덴카츠는 테이찌좌에서 활동하던 중인 1900년에 ‘우의무(羽衣舞)’를 추어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이후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스승인 테이찌와 더불어 구미 순회공연을 하며 일찍이 서구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발 빠르게 서구적 기법을 미술에 사용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3) 구미인과의 의사소통을 구상하고 일본의 서구화 정도를 과시할 목적으로 만든 외교 무도 회장.

4) 쇼코쿠사이테이찌(1843-1912) 서양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한 최초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일인자이다. 당시 기술사의 사회적인 지위는 매우 낮았으나 서양문물의 조류를 타고 큰 인기를 얻었다.

1912년(大正元年)에는 명치천황의 죽음으로 일본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제국극장을 중심으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대였다. 1911년 텐이찌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마술단체인 텐카츠좌를 설립하였다. 텐카츠좌는 일본 각지는 물론 조선, 대만, 만주, 미국 등지에서 해외 순회공연을 시작하여 명성을 널리 떨쳤다. 1913년에 텐카츠좌의 매니저였던 노로와 텐카츠가 결혼을 하자 많은 단원이 텐카츠좌를 떠나게 되었으나 오히려 텐카츠좌가 새로운 노선으로 발전해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텐카츠는 연극, 무용, 음악과 마술과의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자신의 무대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 쇼시렌(嬢子連⁵⁾)을 육성했다. 1915년에는 마술과 춤 연극을 융합한 마술용용극 '사로메'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어 텐카츠좌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후 단원을 오페라, 연극, 음악, 무용 등 타 분야 단체로부터 실력이 있는 단원들을 채용하여 무대를 새롭게 개혁해 갔다.

1924년부터 약 1년간에 걸친 미국 순회공연에서는 미국식 대중 공연물에 영향을 받았으며 기술·마술의 도구와 발레 무용수 그리고 재즈밴드와 함께 귀국하였다. 텐카츠는 마술과 미국식 대중 공연물을 접목시켜 새로운 공연물을 창안하는 등, 대중공연예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4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일본 각지는 물론 주변국인 조선, 대만 등지에서도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1936년 4월 21일 텐카츠2대 첫 공연에서 찬조 출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텐카츠는 1938년까지 무대 생활을 하였으며 1944년 11월 11일에 사망한다.⁶⁾

텐카츠좌의 공연은 1915년 '사로메' 공연을 계기로 인기가 더욱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대성황을 이루었다. 흥행은 대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6, 7일에 걸친 장기 흥행이 예사였다. 이와 같은 흥행 상태는 계속되었으며 공연 장소에 따라서는 연일 만원사례를 감사하는 연장 공연을 하는 등의 치밀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는 많은 마술단체가 존재했는데 텐카츠좌를 사칭하여 공연하는 마술

5) 텐카츠좌의 원활한 공연 전개를 위해 만들어진 특유한 여성단체로서 춤, 음악, 기술 등을 학습 훈련하여 멀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6) 石川雅章(1971). 『松旭齋天勝』, 東京:桃源社, pp.268-300

단이 있을 정도로 덴카츠좌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덴카츠좌의 인기는 주변국으로도 이어졌다. 주변국에서의 흥행은 대체적으로 대만, 조선, 만주를 순회하는 장기 공연으로 이어졌다. 항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체해 가며 공연을 하였는데 특히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을 계획하여 관객의 폭을 넓혀 갔다.

덴카츠는 8차례에 걸쳐 경성에서 공연했으며 배우자를 맡아 양육하고 예능을 가르쳐 단체의 스타적인 존재로 길러내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경성 외에도 평양, 안동,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순회공연을 하였다. 덴카츠좌는 경성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체류하며 공연하였고 공연 주기는 2, 3년으로 나타나며 주로 박람회 등의 큰 행사에서 흥행하였다.

III. 덴카츠좌의 춤의 전개 양상

덴카츠좌의 경성공연에 관해서 1913년 11월 10일 경성에서 첫 번째 흥행을 하였고, 명치 천황의 죽음으로 인한 음주가무 금지령(1912.7.31 - 8.4)을 계기로 대만, 만주, 조선, 등지로 덴카츠좌의 순회공연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보니 그보다 2년 전인 1911년 9월에 '고종환갑기념' 여흥을 위해 경성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11년은 경성방문을 살펴보면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연단체를 구성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덴카츠좌의 첫 흥행공연을 1913년으로 본다면 1911년의 '고종환갑기념'의 여흥을 위한 초대는 첫 경성 방문공연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 이왕가의 초대로 궁중에서 열린 여흥은 1911년 9월과 1913년 11월 두 차례로 나타난다. 먼저 덴카츠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성방문공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왕가의 궁중 여흥 공연과 흥행 공연

고종의 환갑을 축하하는 1911년 행사에서 덴카츠는 덕수궁 중화전에서 여흥으로 기술(奇術)을 공연하였다. 환갑연에는 140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행사 후 오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공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관람객의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종이 친히 관람을 했다는 점에서 볼 때 덴카츠좌의 첫 방문공연은 상당히 성대하게 치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李王德壽宮行啓(이왕덕수궁행계) 本日は 덕수궁 李太王 전하의 六旬生誕인故, 창덕궁 李王同王妃兩壽宮에 行啓하여 祝賀宴했다가 午後 중화전에서 天勝 奇術을 御覽하시고 同五時頃에 환궁하신다더라. 덕수궁 辰延宴 140명 참가⁷⁾

여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공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술을 공연하였다고 하니 기술사로서의 덴카츠의 명성이 이미 조선에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된 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일본에서의 덴카츠의 명성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종의 환갑기념 공연의 여세를 몰아 일반 공연을 했다는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다. 1911년 당시 조선의 정세를 생각한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각지에서 순회공연을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러 날 동안 대중 공연을 하는 것이 덴카츠좌의 공연패턴인데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경성까지 방문했다는 점, 대중공연을 왕이 친히 관람했다는 점 등에서 어떻게 덴카츠좌가 초대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번째로 이왕가의 초대를 받은 것은 1913년 11월 17일이였다.

天勝仁川乘入(천승인천승입) 천승일행은 16일 경성 공연을 마치고 인천 가부좌에서 3일간 흥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왕가의 초대로 인하여 1,2일간 인천에 들어오는 것을 연기한다.⁸⁾

仁政殿의 奇術演(인정전의 기술연)目下 壽座에서 출연중인 교코쿠사이덴카츠는 一昨年當地巡業時 李王家太王兩殿下의 御召命을 依^ㅎ야 御^ㅇ에서 奇

7) 1911년 9월 8자『매일신보』 원문의 일부를 현대문으로 수정했음. 이하 같음.

8) 1913년 11월 13일자 『조선신문』

術十數番을 演하여 各種御下賜品等이 有하였더니 금회도 又又 御召命을 蒙
 하여 17일 밤 창덕궁 인정전에서 출연할 터 인디 今曰 彼○演 하는 羽衣舞
 는 전기색채 중 특히 이왕가의 御紋章을 映出한다더라⁹⁾

위의 기사와 같이 이왕가의 갑작스러운 초청으로 인하여 인천 가부기좌에서의 공연은 연기되고 1913년 11월 17일 밤 창덕궁 인정전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재작년(一作年)에 조선에서 순회공연을 할 때에 이왕가의 어명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11년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환갑기념’ 여흥으로 한 공연을 칭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우의무’ 를 소개하며 전기색채로 이왕가의 문장을 비취 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기 광선에 비친 이왕가의 문장을 배경으로 춤을 춘 것으로 해석된다.

덴카츠는 1911년 방문 이 후, 1915년부터 1935년 은퇴공연까지 8차례 경성 공연을 하였는데 특히 1921년 경성 공연 당시에는 ‘오리지널 향수’ ‘모리나가 밀크 카라멜’ 등 전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광고 선전에 앞장서고, 각 일간지에서 연일 만원 사례 소식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등, 경성에서의 덴카츠좌 공연은 전성기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덴카츠좌의 경성 공연은 때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대중에게 근대 문물과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다음 1911년부터 1935년까지 덴카츠좌가 경성에서 공연한 시기와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다음 항목에서는 덴카츠좌에서 다양하게 공연되어진 춤을 그 형태와 내용에 따

〈표 1〉 덴카츠좌의 경성 공연 목록

년도	장소	내용	주최
1911	덕수궁의 중화전(9.17)	고종환갑기념	이왕가
1913	수좌(11.10) 인정전(11.17)	조선공연 이왕가 초청공연	매일신보, 경성일보 이왕가
1915	공진회의 연예관(10.9-19) 유락관(10.27-30 / 10.22-26)	시정5주년기념물산공진회 가정박람회	물산공진회
1918	황금관(5.23)	조선공연	매일신보, 경성일보
1921	황금관(5.21-30)	조선공연	모리나가 밀크카라멜

9) 1913년11월16일자 『매일신보』

〈표 1〉 계속

년도	장소	내용	주최
1926	경성극장(5.13-6.11)	조선박람회	조선신문
1929	동아구락부(11.5-10)	조선공연	
1935	경성극장(10.10-15) 영등포극장(10.16) 용산극장(10.17-18)	은퇴공연	불분명

라 1. 우의무, 2. 마술응용무용극, 3. 재즈 댄스와 일본무악으로 분류하여 덴카츠좌의 춤의 수용과 사회적 변이에 따른 춤의 전개 양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2. 덴카츠좌의 춤 프로그램과 내용

가. 전기를 응용하여 춘 ‘우의무’

‘우의무’는 한자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날개를 달고 추는 춤으로 연상 할 수 있으나, 일본어로는 ‘하코로모 댄스’라 읽고 그 뜻은 선녀춤으로 해석 된다. 춤의 명칭에 ‘댄스’를 붙인 것은 새로운 춤 즉, 관객에게 서양춤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우의무’의 기본적인 구상은 얇은 천으로 만든 의상과 광선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와 그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반나체로 추는 듯 한 에로틱한 분위기가 있는 춤이었다.¹⁰⁾

덴카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전기 응용”이란 지금 생각하면 넌센스이지만, 무대조명이 아직 유치한 때이었으므로, 얇은紗에 스팅클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만든 의상 위에 매우 귀했던 회전 휠터를 사용하여 무지개 색 조명을 받은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연습 해 온 본격적인 댄스를 끝까지 추기는 했지만 얇은 의상 속으로 비치는 저의 세미 누드를 엿보이게 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에로티시즘이었으므로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왔고 이것은 마술적인 미스테리와 함께 상승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게 되었다.¹¹⁾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서양의 춤과 의상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는 호기심을 불

10) 靑園謙三郎(1976), 『松旭齋天一の生涯』, 東京:品川書店, pp.141-142

11) 松旭齋天勝(1991), 『魔術女王一代記』, 東京:かのう書房, p.94

러일으킬 만 한 춤이었을 것이다. 단지 나비처럼 얇은 베일을 훨훨 날려가며 춤을 출 때에 광선의 빛을 통해 의상 사이로 팔과 다리가 들여다보일 뿐이었겠으나 관객 입장에서는 서양춤을 흉내 낸 그 자체가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특히 색 조명을 비추어 의상 속이 흰히 드러나는 실루엣은 마치 반나체로 춤을 추는 듯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²⁾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에로시티즘이었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기한 서양춤과 더불어 덴카츠의 탁월한 육체미가 상승효과를 불러 온 것으로 여겨진다.

‘우의무’는 덴카츠의 독창적인 춤은 아니었다. 스승인 덴이치가 1894년 7월 일본에서 합동 공연을 하게 된 이태리 곡마단의 인기 여배우 미스 아테야가 춘 ‘우의무’¹³⁾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1900년(명치 33년)에 덴카츠에게 추게 한 것이다. 덴이치는 덴카츠의 선천적인 관능미를 살려 우의무를 추게 하여 자신의 마술단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싶은 의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¹⁴⁾ ‘우의무’는 1913년 11월 경성에서 처음 공연되어 1915년 조선시정5주년 ‘물산공진회’까지 만 추어졌다.¹⁵⁾ 이는 덴카츠의 연령이 30대 중반에 들어섰으며, 1915년에 마술응용극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극에서 춤이 본격적으로 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춤의 물리적인 충동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사로메’는 14일까지 그 후에는 우의무. ... 이 호평을 ‘사로메’는 14일까지에 마치고 15일부터 다시 천승과 및 일행의 제일 잘하는 우의무(羽衣舞)와 희극을 할 터이었는데, 이 우의무는 여러 가지 광선을 이용하여 보기에 대단히 화려한 것이라고 ...¹⁶⁾

덴카츠가 우의무를 1900년부터 추기 시작하여 마술응용극이 만들어지는 1915년까지 추었다고 해도 무려 15년간이나 동일한 춤을 춘 것이 된다. ‘우의무’는 덴카츠

12) 일본에서 처음 칼라 호일을 사용하여 색채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조명법이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로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현혹시켰다(高木史朗(1991).『레뷰의 女王』 p.43).

13) 1910년 4월 교토미나미(京都南)좌에서 개최된 기텐사이쇼우이찌(歸天齋正一)와 미스 모토 안바쵸의 일영합동 대마술(日英合同大奇術) 행사에서 안바쵸가 “우의무”라는 제목으로 춤을 추었다. 1910년 4월 20일자 『교토히노데신문』

14) 丸川賀世子(1984) 『奇術師誕生』, 동경: 신조사, p.73.

15) 1915년의 경성공연 프로그램 중에 ‘우의무’ 외에 ‘호접무’가 있다(1915년 10월 17일자 『매일신보』).

16) 1915년 10월 13일자 『매일신보』

의 생애를 통해서 반복 되어 추어지고 개선되어 그 원형을 응용하여 다른 춤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텐카츠가 춤에 자신을 얻게 되는 것도 ‘우의무’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텐카츠의 춤의 기반이 된 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마술응용극 ‘사로메’

‘우의무’를 추어 큰 인기와 호평을 얻은 텐카츠는 1915년에 마술에 연극과 무용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식의 마술응용극을 무대에 선보였다. 텐카츠좌가 기술과 마술이 중심적이었던 공연에서 점점 다양한 장르를 수용한 대중적 공연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술응용극의 첫 번째 작품인 ‘사로메’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형식에 맞춘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공연되었다.

텐카츠좌는 1915년 4월 9일 교토에서의 ‘사로메’ 공연을 마치고, 경성에서 개최되고 있던 ‘시정5주년기념 물산공진회’의 여흥의 하나로 ‘사로메’를 공연하였다. 텐카츠가 ‘마술응용극’을 만들게 된 동기와 극의 주제를 ‘사로메’로 정한 동기는 그 당시 연극계 최고의 스타였던 마츠이스마꼬(松井須磨子)¹⁷⁾의 ‘사로메’를 관람한 후, 스마꼬가 춘 사로메의 춤을 보고 흥미를 갖게 된 데에 있었다.

텐카츠는 스마꼬보다는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자신도 ‘사로메’를 만들면 스마꼬의 ‘사로메’보다 더 훌륭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¹⁸⁾ 더욱이 연극에 마술을 응용한다면 대중에게 한층 더 인기를 받을 것으로 기대 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춤이었으나 그것은 대체적으로 탕고와 같이, 복부를 가볍게 문지르며 추는 춤으로 스마꼬상이 춘 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인해 고생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귀국한 다카끼 도꾸코상이 너무나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¹⁹⁾

[텐카츠의 사로메] 기다리고 기다리던 텐카츠 일행의 …텐카츠좌… 중에는 꽃도 무색할 만한 미인 십여 명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양장의 모습으로 춤도 추고 기묘한 마술도 보인다. 텐카츠양은 오늘날 연극계의 호평을 얻고 있는

17) 1886明治19年~1919大正8年)1909년부터 약 10년간, 坪内逍遙, 島村抱月 일본근대극운동의 여배우로 활약. 대정시대를 풍미한 인기 여배우 중 최고의 여배우.

18) 1915년10월12일자 『경성일보』

19) 1915년9월28일자 『교토 히노데 신문』

사로메를 연기 할 예정. 더욱이 미술응용에 더해 덴카츠의 일류 곡선미를 보이기 때문에 공연 때에 대 갈채를 받을 것이다.²⁰⁾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스마꼬가 춘 춤과는 다른, 탕고와 같은 춤으로, 복부를 가볍게 문지르는 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로메의 내용에 맞춘 요염한 춤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나체로 추었으며, 신체 그 자체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춤이라는 점에서 '우의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작품을 시도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사로메' 극 도중에 나오는 에로틱한 독무 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겠다. 덴카츠의 일류 곡선미를 보이기 때문에 대 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덴카츠의 육체에 관객의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무는 미국에서 막 귀국한 다카끼 도꾸꼬(高木徳子)²¹⁾에게 의뢰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덴카츠가 창작한 춤은 아니다. 연출과 대본은 오사나이가오루(小山内薫)²²⁾가 맡았다. '사로메'는 덴카츠의 자질이나 노력만이 아닌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관계되었다는 것도 '사로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덴카츠의 선천적인 육체의 미는 에로틱한 표현에 상승작용 하여 사로메 춤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미술응용무용극

1915년 '사로메'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에, 일본에서는 '사로메' 다음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The Tempest)'를 공연하였는데, '사로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귀여운 요정으로 출연하여 호평을 얻었다. 또한, '찰리 아줌마'라는 희극에서 하녀의 역할을 연기하기도 하여 점점 연극적으로도 안정된 공연을 해 갔다. 1915년 '사로메' 공연 당시에는 덴카츠와의 연극적인 무대의 평가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덴카츠의 연기력에 대한 일정적 평가가 보이게

20) 1915년10월10일자 『경성일보』

21) 1891(明治44年)~1919(大正8年) 미국에서 클래식 발레와 민속 무용, 발레스크 등을 폭 넓게 배워 일본에 도입한 선구적인 무용가. 일본에서 토슈즈 댄스를 신고 춤을 춘 최초의 사람으로 아사쿠사 오페라 붐의 시조가 됨.

22) 1881(明治14年)~1928(昭和3年). 명치 말부터 소화 초기에 걸쳐서 활동한 연극가. 현실주의 연극을 확립을 지지하고 현재에 이르는 신극의 기초를 구축했다.

되었다.

마술응용극은 점점 화려하게 전개되고, 화려한 춤이 풍부하게 가미되어 무용극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이 같은 마술응용무용극의 스타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술, 춤, 연기, 연주, 일본무용, 노래에 이르기까지 멀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조시렌(麩子連)이 있었다. 텐카츠좌에 있어서 조시렌은 텐카츠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성에 소개 된 마술응용무용극으로는 1918년의 ‘평화의 신과 천사’²³⁾와 1921년의 ‘꿈과 나비’와 ‘신경인형’ 이 있다.

1) ‘평화의 신과 천사’

1918년 경성에서 마술응용무용극으로 ‘평화의 신과 천사’가 공연 되었다. ‘평화의 신과 천사’는 ‘사로메’와는 달리 아사쿠사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뮤지컬 코미디로서 연극과 마술 그리고 조시렌의 화려한 춤을 접목시켜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당시 아사쿠사에서는 오페라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1917년 뮤지컬 코미디적 성격을 가진 창작오페라 ‘여군출정’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갑작스럽게 번져갔다.²⁴⁾

‘평화의 신과 천사’는 1914년 7월에 발발한 세계 제1차 대전이 드디어 최종국면으로 돌입하면서 평화를 희망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연출과 안무는 아사쿠사 오페라에서 활동하던 니시모토 나가하루(西本長春)에게 맡겨졌다.

큰 화원에서 소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꽃을 따고 있는 곳에 독일군이 나타나 도망가려고 갈팡질팡한다. 얼마 후 전쟁은 끝나고 평화회복의 축제로 이어진다. 배경은 그리스의 오리포스 산으로, 먼저 불의 신, 이어서 눈부신 요정들이 차례로 나타나 평화를 구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곳에 평화의 여신(텐카츠)이 많은 천사들을 몰고 구름 위에서 내려와서 평화선창을 하며 모두 춤을 춘다.²⁵⁾

23) 일본에서는 ‘평화의 여신’이란 제목으로 공연되었다.

24) 高木史朗(1955), 『レビューの王様』, 東京: 河出書房新社, pp. 20-21.

25) 石川雅章(1960), 『松旭齋天勝』, 東京: 桃源社, pp.163-164.

요정과 평화의 여신이 평화를 선창해가며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스러운 느낌의 작품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담아내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차례차례 요정들이 등장하고 평화의 여신이 많은 천사들을 몰고 등장하여 모두 춤을 춘다는 내용으로 보아 화려한 무대의 연출이 돋보이는데, 이는 오페라적인 성격을 담아 연출을 맡은 니시모토 나가하루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즈음 덴카츠좌에는 아사쿠사 오페라에서 가장 명한 배우·댄서로서 활동하던 사와모리 노(澤モリノ)²⁶⁾, 가수인 남부구니히코(南部邦彦) 등 각 분야의 스타들이 입단하여 '덴카츠가극단' 이라도 만들어질 것 같은 기세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²⁷⁾

천사와 요정들의 춤은 무용극의 내용으로 보아 '우의무'와 '호접무'가 응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로메'의 에로틱한 춤과는 달리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춤이 추가됐을 것이다. 아름다운 요정의 의상을 입은 죠시렌이 대거 출연하고 덴카츠가 평화의 여신으로 등장하면서 무용극은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화려한 레뷰적인 무대를 방불케 하였을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를 공연물에 담아 관객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요정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유년시절 덴카츠좌에 입단했던 배구자로, 1918년 경성 공연은 배구자의 첫 데뷔 무대로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배구자는 1926년 경성 공연 때까지 덴카츠좌의 주요 배우로 활동 하였다.

2) '꿈과 나비'와 '신경인형'

1918년 이후 덴카츠의 무대는 더욱더 연극적인 경향이 강하면서도 춤이 많이 삽입된, 가족을 위한 교훈적이고 가정적인 내용이 늘어났다. 1921년에 공연된 '꿈과 나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무대 한 장면, 마음까지도 녹을 것 같은 한가로운 어느 봄, 벚꽃이 피고 많은 풀이 여기저기 피어있다. 일요일 아침부터 들뜬에 놀러 온 두 소년(나쁜 소년과 선한 소년)은 아름답게 피어있는 풀과 꽃을 따기도 하고 새들의 뒤를 쫓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나쁜 소년이 예쁜 나비가 날고 있는 것을 발견

26) 제국극장에서 로시가 처음으로 가르친 학생 중에 한 사람이며 이시이바쿠와 같은 팀을 이루어 아사쿠사 오페라에서 활동하였다.

27) 전개서 p.164

하고 결국 그것을 잡지만 그 때 선한 소년은 “살아있는 것을 못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라 하며 그의 손에서 빼앗아 날려 보낸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놀다 지쳐서 풀 위에서 잠이 든다. 그때에 갑자기 두 마리 나비가 나타나서 나쁜 소년은 묶고, 선한 소년의 손은 잡아끌어 나비의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 홀연히 운기 있게 장식한 꽃의 요정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쁜 소년이 저질렀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설법을 들려주고, 그 나쁜 마음을 선물로 하 나비의 나라로 가지고 가 나비의 요정을 만나 사죄한다. 나비의 요정도 그 소년을 용서하고 두 소년의 장래를 축복하며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며 긴 봄날의 하루를 지낸다.²⁸⁾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듯한 황당한 이야기이다. 배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조시렌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화의 신과 천사’ 과 같은 화려한 분위기의 무용극은 아닌 것 같다. 덴카츠좌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가정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는데 ‘꿈과 나비’ 도 그 중의 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주로 창안된 ‘호접무’ 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덴카츠가 입은 나비 요정의 의상은 2척 남짓한 비단 천 날개를 달은 것으로, 날개에 오색 광선을 쏘아서 한층 더 이채롭게 수놓아²⁹⁾ 춤의 효과를 더 하였을 것이다.

‘꿈의 나비’ 의 안무는 당시 아사쿠사 오페라에서 활동하며 순회공연을 하고 있던 이시이바쿠(石井漢)가 담당했다. 이 작품에서 배우자는 선한 소년 역할을 배역으로 맡았는데, 당시 이시이바쿠에게 춤을 배웠다고 한다면 최승희가 이시이바쿠를 만나기 6, 7년 전의 일이 된다.

‘꿈의 나비’ 에 이어 공연된 ‘신경인형(新京人形)’ 은 ‘경인형(京人形)’ 이라는 기존의 작품을 원형으로 만들어졌다. ‘경인형’ 은 기술응용무용극이라고 할 만한 작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타로는 실제 사람의 키와 같은 크기의 경인형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고타로가 맘을 줄줄 흘리며 정을 놀리고 있는 사이에 조수가 완성된 인형을 수납 할 나무상자를 받침대에 올려, 빙 둘러 보이며 관객에게 상자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 동안에 경인형이 겨우 완성되

28) 1921년5월20일자 『경성일보』

29) 1921년5월21일자 『경성일보』

고 히다리 진고로(左甚五郎)가 만족 한 얼굴로 그것을 상자에 넣고 경인형이라고 크게 써 있는 상자 뚜껑을 덮은 뒤 한숨 놓고 담뱃불을 붙인다. 그 사이에 나무상자를 다시 한 번 회전시킨다. 고타로가 한 번 더 뚜껑을 열고 인형과의 고틀을 고하려고 할 때에, 지금 막 상자에 넣었던 나무로 조각된 인형으로 영혼이 들어가 경무(京舞)를 춘다.³⁰⁾

‘경인형’은 ‘꿈의 나비’와 같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인형을 등장시키는 부분에서 마술을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여 일본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돋보인다. 서양춤만을 추는 이미지가 강했던 덴카츠가 일본무용을 멋지게 추었다는 호평을 받은 것으로, 이시가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사로메’와는 전혀 다른 순수 일본풍으로 춤을 추었는데, 덴카츠 자신도 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잘 균형이 잡힌 자세로 아름답게 마음껏 무대를 활용해 가며 끝까지 춤을 추었다. 관객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도 스스로도 그 아무것도 없이 그저 춤 그 자체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것이 덴카츠의 춤이다. 라고 마쯔모토 고우시로(松本幸四郎)와 기꾸고로(菊五郎)가 칭찬을 했다.³¹⁾

‘신경인형’은 ‘경인형’ 후반부에 당시 일본 가극계에서 평판이 자자했던 ‘웨딩 군인’을 삽입하여 구성한 것이다. 경인형으로 분장했던 덴카츠가 코삭크 인형으로 재빨리 변장하여 코삭크 춤을 추는, 그 전후의 콘트라스트가 재미를 더하며 그 무대 장치와 의상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³²⁾

내용의 일관성은 떨어지지만 ‘경인형’과 ‘웨딩군인’의 접목이 가져온 반전이 한층 더 흥미위주의 오락적인 성격을 강하게 했다.

라. 재즈 댄스에서 일본무악에 이르기 까지

덴카츠좌는 1926년 경성에서 다시 공연을 하기 전인 1923년에 미국 공연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아사쿠사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여 대소도구, 의상 등에 많은 손실을 입어 예정보다 4개월 뒤인 1924년 2월에 미국 공연을 떠났다. 미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미국 흥행사들에게 공연의 토포

30) 1926년 5월 26일자 『경성일보』

31) 石川雅章(1971). 『松旭齊天一』, 東京: 桃源社, p.151

32) 1921년 5월 20일자 『경성일보』

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 2시간 반이나 되는 공연을 22분간으로, 미즈케이(水芸) 30분을 5분으로 줄여 단축하는 등 신속한 템포 감각을 철저히 지적받았다.³³⁾

덴카츠는 1900년 초반에 스승인 테이찌와 함께 미국에서 순회공연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23년 만에 미국에서 보는 각종 쇼의 원활한 진행과 무대상의 동적인 전개, 조명 효과 등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재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덴카츠는 약 1년에 걸친 미국순회 공연을 끝내고 귀국 할 때에 재즈밴드와 모던댄스 무용수인 버지니아 기첼을 임시 단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귀국 하였다.³⁴⁾

미국 공연 이후 덴카츠좌의 프로그램은 기술과 마술보다는 춤과 음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1926년 경성에서 열린 조선박람회에서도 재즈 밴드 (하와이 사람 8명)와 재즈 댄스, 발레(버지니아)가 소개되었으며 그 외에도 만도린 합주,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솔로, 독창, 촌극(寸劇)³⁵⁾과, 짚시 댄스, 인형 댄스, 오리엔탈 댄스를 마술과 접목시킨 대소마술이 공연되었다.³⁶⁾

그러나 1926년 이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15년에는 소녀댄스와 바이올린 독주가 1921년에 청춘댄스와 독창이 각각 무대에 올려졌다. 물론 그 규모가 작고 기술과 마술의 막간에 추어지거나 연주되는 것이었다고는 하나 대중 무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순회 공연 이후 덴카츠좌는 레부적인 경향이 짙어지며 극단적으로 짧고 세련된 수준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무대의 성향은 덴카츠의 은퇴 공연까지 계속 되어진다.

경성공연에 이어 평양 공연을 마친 6월 3일 배구자가 덴카츠좌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약 15년간의 덴카츠좌에서의 생활에 중지부를 찍은 것이다. 1926년 배구자의 탈출에 이어 1927년 8월 덴카츠의 매니저이자 남편인 노로가 병으로 죽자, 일시적으로 덴카츠좌는 해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많은 흥행사나 스폰서의 격려와 협력으로 단체를 존속시키지만 덴카츠좌의 다음 공연은 1928년으로 연기되었다.

33) 丸川賀世子(1984) 『奇術師誕生』, 東京：桃源社, p.210.

34) 버지니아는 미국의 모던댄스 교사로, 덴카츠의 일본무용에 매료되어 일본으로 건너와 1934년까지 덴카츠 공연에 출연하며 덴카츠좌의 댄스교사로 근무하였다.

35) 미국 거리에서 영향을 받은 “스켓치”를 일본에 이식한 것으로서 시사풍자 미니 웃음극이다.

36) 1926년 5월 16일자 『경성일보』

대정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1928년 11월에는 소화 천황의 즉위식이 행해졌다. 덴카츠좌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오페레타 ‘소화시대’와 신무용 ‘번영하는 소화시대’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³⁷⁾ 이러한 분위기는 1929년 경성 공연으로 이어졌다. 조선 박람회 기간 중에 출연 예정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동아구락부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조선 박람회의 주요한 여흥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재즈 댄스, 스케치 레뷰, 오절무(五節舞)와 봉황무(鳳凰樂)등의 일본무악(舞樂), ‘빈사의 백조’, 촌극 등이 무대에 올랐다.³⁸⁾ 1929년 교토 히노데 신문에 의하면 스케치레뷰는 사회적인 이슈를 풍자적으로 스케치하여 레뷰로 표현한 것으로 죠시렌과 코미디언이 함께 출연한 작품이다. 발레 ‘빈사의 백조’³⁹⁾는 사와 모리노가 추었다. 일본무악인 오절무(五節舞)와 봉황무(鳳凰樂)는 소화 천황의 즉위식을 기념하기 위해 재구성된 작품이다. 실제 일본에서 공연되었던 봉황무는 신무용 ‘번영하는 시대’ (a.봉축무 b. 봉황악 c.문화의 춤) 중 하나의 작품이었으나 경성에서는 봉황무만 공연되었다.

미국 순회공연 이후 덴카츠좌의 무대구성은 미술보다는 재즈에서 일본무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식 프로그램 위주로 나타난다. 즉 대중에게 미국식 무대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식하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1929년 일간지 기사에는 덴카츠의 미술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았다. <내선화합>의 상징이었던 배구자를 잃은 것이 부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성에서의 주요 뉴스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마. 덴카츠의 은퇴공연

1934년 3월 동경에서 덴카츠의 대대적인 은퇴공연이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각 일간지에서는 1년 이상에 걸쳐 은퇴 공연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경성에서는 1935년 10월 10일부터 은퇴 공연을 시작 하였다. 덴카츠가 51세가

37) 1929년3월21일 교토의 변천좌에서 공연

38) 1929년10월 20일자, 1929년 11월6일자 『경성일보』

39) 1932년경 이 무용을 본 이시이바쿠는 “ 긴 세월 동안 비참한 무대 생활에 의한 고통스러운 무용 ” 이라고 평을 하였다. (이시이바쿠, 『나의 무용생활』, p.64)

되는 해이다.

경성극장 10월10일부터 6일간 은퇴 특별 대흥행. 두 번도 볼 수 없는 미술의 여왕 ... (중략)... [송옥재천승 좌] 일행 17명, 저를 사랑해 주셨던 덴카츠펜 여러분 드디어 이것이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 버라이어티, 소품 미술, 아크로바틱, 독창, 유행무용, 사회 스케치 촌극, 덴카츠 은퇴인사, 덴카츠 18번 일본고유 미술, 미즈게이(水藝)⁴⁰⁾

天勝 10일부터 평양에서 감기가 걸려, 그 때문에 경성극장에서 개연이 늦어지게 된 덴카츠 일행은 드디어 경성 첫날은 10일로 결정 ... 프로그램은 개막버라이어티(1.재즈, 2.룸바) 소품미술, 아크로바틱, 일본고유 기술, 독창, 촌극, 러시아댄스, 무용쇼, 미즈게이(水藝)...⁴¹⁾

기술로 유명한 天勝一行 10일부터 공연 기술마술로 그 이름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 송옥재천승일행이 또 서울에 와서 다음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천승은 무대생활 38년간 동안에 가지가지의 진기한 기술을 창안하여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인데 이번 경성에서의 공연은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천승은 어런처로 분장하여 나오리라 합니다...⁴²⁾

天勝一行來京(덴카일행래경) 미술 흥행으로 유명한 천승일행이 경성에 와서 십일부터 육 일간 경성극장에서 흥행을 하게 되었다.⁴³⁾

덴카츠의 은퇴공연에 대한 기사는 간단한 은퇴 공연 소식과 프로그램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일본에서와 같은 대 규모 공연 소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구성은 미국 공연 후인 1926년 공연 때와 같이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나며 재즈나 룸바, 무용쇼, 유행댄스, 일본무용 등은 레뷰식으로 레퍼토리화한 춤들로 여겨진다.

덴카츠는 은퇴 순회공연 후, 1936년 4월 21일에 2대 덴카츠로 세대 교체되는 '쇼쿄쿠사이덴카츠2대습명(襲名)피로(披露)특별대흥행'에 출연하였다.

40 1935년 10월 10일자 경성극장 자체의 공연 소식란 『경성일보』

41) 1935년 10월 8일자 『경성일보』

42) 1935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

43) 1935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11년부터 1935년까지 덴카츠의 경성 공연 프로그램 중 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11년에 덴카츠좌를 창단한 덴카츠는 미술과 춤, 음악, 연극 등과 접목을 적극적으로 하여 장르를 초월한 통섭적인 예술형태를 추구하며 단체를 종합 예술마술단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무용 레파토리를 살펴보면 미술에 다양한 장르의 춤의 수용하여 그 시대를 반영한 모던하고 화려한 무대 공연을 통해 근대 대중공연 예술의 전도사적인 역할을 하였다. 덴카츠는 여성예인집단 죠시렌을 조직하고 다방면으로 훈련시켜 덴카츠좌의 화려한 무대를 원활히 지탱하고 장식하도록 레뷰단으로 양성하였다. 또한 수준 있는 공연을 위해 유명한 연출가, 안무가, 작가와 스텝 그리고 출연자를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덴카츠좌 무대는 당대 최고의 볼거리와 수준을 자랑하였다.

예술의 대중성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놓고 공연을 한 덴카츠좌의 공연중에서 경성공연의 춤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덴카츠 춤의 상징이 된 '우의무'를 통해서, 근대의 과학기술과 춤이 접목으로 대중성을 획득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춤은 1900년 덴카츠에 의해 처음 추어졌는데, 광선을 얇은 의상 속으로 비추는 방식으로 덴카츠의 육체미와 실루엣의 에로틱한 움직임을 부각하였다. 서양 춤에 익숙하지 않았던 관객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춤으로 보여졌으며, 이 춤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런 성공이 이후 덴카츠 춤의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미술에 춤, 음악, 연극을 접목시킨 '마술응용무용극'이다. 1915년 '사로메', 1918년 '평화의 여신', 1921년 '꿈의 나비'와 '신경인형'이 이에 해당한다. 덴카츠는 '사로메'에서 에로시티즘을 강조한 춤으로 '평화의 여신'과 '꿈의 나비'에서는 날개를 단 천사 또는 요정의 춤을 추었다. 이 작품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화려한 춤에 미술의 효과까지 가져와 관객의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신경인형'에서는 일본춤을 추어 서양춤만을 춘다는 이미지에 대한 반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이 작품은 후반부에 코사크 댄스를 등장 시켜 더욱더 오락성이 짙은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셋째는 재즈댄스와 발레 그리고 일본춤의 본격적인 레뷰식 레퍼토리화이다. 1926년 ‘재즈 댄스’, ‘3개의 댄스(짚시 댄스, 인형 댄스, 오리엔탈 댄스)’ 1929년 ‘스케치 레뷰’, ‘일본무악’, ‘빈사의 백조’, 1935년 ‘룸바’ ‘재즈’ ‘러시안댄스’ ‘유행댄스’가 이에 속한다. 이것은 덴카츠가 1924년부터 1년여에 걸친 미국 공연 후 변화된 춤의 전개 방식으로서, 미국식 레뷰와 쏘적인 무대 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무대화 시켰으며, 더욱이 죠시렌에 의한 레뷰는 더욱 화려한 군무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춤으로는 1929년 소화천황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한 ‘일본무악’과 1935년 여러 가지 일본전통춤을 레뷰식 레퍼토리화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덴카츠가 덴카츠좌를 통해 경성의 무대에 올린 춤들은 서양의 민속춤, 발레, 재즈댄스, 일본전통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덴카츠의 공연은 언제나 화려하고 볼거리가 가득하였으며, 춤들은 각종 장르와 결합되어 전기기술, 마술, 음악 등이 접목된 형태였다. 현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화려한 무대 연출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덴카츠와 덴카츠좌의 공연을 통해 그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화컨텐츠와 춤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덴카츠의 공연 무대에 순수한 창작 작품을 없이 많은 부분이 레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겠으나, 당시의 공연여건과 관행에 미루어 보면 덴카츠의 다양한 시도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창작물인 것이다. 덴카츠의 자유로운 개방성이 만들어 낸 덴카츠좌의 무대 공연은 재빨리 당대의 유행을 흡수하여 대중공연예술로 승화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성에서의 공연은 대단히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연형태가 경성과 조선의 예술계와 대중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高木史朗(1955). 『レビューの王様』. 東京: 河出書房新社.

戸板康二(1987). 松旭齋天勝のサロメ. 『泣きどころ人物誌』. 文藝春秋社.

송안중(2009). 『재일 음악의 100년』. 동경: 청토사.
 松旭齊天勝(1991). 『魔術女王一代記』. 東京: かのう書房.
 石川雅章(1971). 『松旭齊天勝』. 東京: 桃源社.
 石井漠(1951). 『私の舞踊生活』. 東京: 講談社.
 町田孝子(1968). 『舞踊の歩み百年』. 櫻楓社.
 青園謙三郎(1976). 『松旭齊天一の生涯』. 東京: 品川書店.
 丸川賀世子(1984). 『奇術師誕生』. 東京: 新潮社.
 김영희(2008). 일제 강점기 레뷰 연구. 『한국무용사학』 9: 203-233.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신문』
 『동아일보』
 『東京日日新聞』
 『都新聞』

논문투고일	2011년	11월	1일
심사일		11월	8일
심사완료일		11월	21일

Abstract

Study on Changing Developments of Syokyokusai Tenkatsu's Dance

Ju-hee Lee
Professor of Dance
Chung-Ang university

Tenkatsu troupe was a magic performance team that wanted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by combining magic with other genres of performance. It appealed to the audience of the time when people were not familiar with the Western culture and goods. Tenkatsu troupe was sometimes seen as a circus troupe or a group of entertainers because of its program structure that accommodated diverse dances and reflected the trend of the time. However such structure played a big role in establishing itself as a public performance art group and a messenger of modern stage performance.

Tenkatsu troupe enjoyed a huge popularity from its founding in 1911 to the retirement stage in 1935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then Chosun), Twaiwan, Manchuria, and the US. With its focus on technique and magic, Tenkatsu troupe embraced genres such as dancing, play, and music while it pursued splendid stage that is both interesting and modern by reflecting the trend of the time. To achieve modern and splendid performance, Tenkatsu troupe organized Chosiren(조선리렌) and trained its performance to learn Western dance, Japanese dance, acting, singing, playing instruments as well as magic. Chosiren(조선리렌) has gradually evolved into a revue group that backed the smooth and splendid stages of Tenkatsu troupe and played a key role as an integral part of Tenkatsu. Tenkatsu troupe introduced most famous directors, choreographers, writers, staff, and actors(actresses) to prepare a perfect stage. Choreographers played the rol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performance by training Tenkatsu and Chosiren(조선리렌). The performances of Tenkatsu troupe were splendid and lavish. And at the center of the performance, there was always dance. Style of dance has changed over time reflecting the time and society, affecting the stage of Tenkatsu troupe.

www.kci.go.kr

In Seoul(then Kyongsung) between 1911 and 1935, various dances took places and they include modern dance, ballet, Jazz dance, and Japanese dance. By time, they include Woo Yui dance in 1913, Woo Yui dance Girls Dance, Butterfly Dance, Youth Dance in 1921, an applied magic play “Salome” in 1915, an applied magic dance play “Goddess of peace” in 1918, an applied magic dance play, “Dream Butterfly, Nerve Puppet, Girls Dance, Youth Dance” in 1921, and Jazz dance and three dances(gypsy dance, puppet dance, oriental dance) in 1926, Jazz dance, sketch revue, a Japanese court dance and music “La Mort Du Cygne” in 1929, and rumba, Jazz, Russian dance, trendy dance.

Although Tenkatsu danced and experienced dancing throughout her life, it is hard to say that she has created a new world of dance to say strictly. However, she overwhelmed the audience with the inborn beauty and power of her dancing. As stated above, Tenkatsu introduced staff and actors(actress) from outside her group and it is reflective of her open-mindedness. Still her presence was so significant because the time she lived was one that has changed fast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Tenkatsu attracted audience from Japan and nearby region as a leader even without creating her own dancing due to the aggressive openness and the human appeals.

keywords: Syokyokusai(쇼쿄쿠사이덴카츠), Tenkatsu(덴카츠좌), Tenkatsu troupe(마술응용극), applied magic play, applied magic dance play(마술응용무용극), Salome(사로메)